

주일가정예배

2022년 1월 23일 주일예배

인도: 가족 대표

기 원 인도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12:1,2)

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십자가를 통해 죄 사함을 받고 인생의 연약함을 치유 받은 주의 자녀들이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이 예배를 통해 우리가 드리는 찬양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의 감사가 산 제물이 되며,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디딤돌이 되게 하옵소서. 마음을 열고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나아온 우리 가정을 성령의 능력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예배의 영광 가운데 소망이 새롭게 되어 변화와 회복의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287장 다같이

1. 예수 앞에 나오면 죄 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2.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맘에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3.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후렴)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로마서 8장 12~14절 인도자

12.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빛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13.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써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14.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설 교 『죄 죽이기』 인도자

기 도 설교자

찬 송 187장 다같이

1. 비둘기 같이 온유한 은혜의 성령 오셔서
거친 맘 어루만지사 위로와 평화주소서
2. 진리의 빛을 비추사 주의 길 바로 걸으며
주님을 옆에 모시고 경건히 살게 하소서
3. 주님과 동행하면서 거룩한 길로 행하며
진리의 예수 붙잡고 길 잃지 않게 하소서
4. 연약한 나를 도우사 하나님 나라 이르러
주님의 품에 안기는 영원한 안식 주소서.
아멘.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 광 고 】

1. 코로나19의 빠른 종식과 수고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헌금안내
※중앙교회 공식계좌로 이름과 헌금종류를 적어 송금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름+감사” / “이름+주일” / “이름+십일”
※중앙교회 공식계좌: 기업은행 022-046724-04-012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중앙교회

죄 죽이기

로마서 8:12-14

존 오웬(1616-1683)은 웨일즈 출신 청교도 신학자와 설교자로서 '청교도의 황태자'로 불렸고, 개혁주의 경건의 핵심을 말한 분이다. 1616년 잉글랜드 옥스퍼드셔에서 출생했고 호국경 크롬웰의 전임목사가 되었다. 1651년 옥스퍼드 대학교 크라이스트처치 칼리지 학장, 1652년 옥스퍼드 대학교 부총장이 되었다. 당시 학생들의 영적 나태함과 무기력, 부도덕한 행실을 보며 가톨릭과 국교회 지도자들이 죄는 깨닫게 하지만 치료책을 제시하지 않아 신자들이 괴로움 가운데 살아가는 현실에서 설교했다. 설교 <죄 죽이기>(1656)는 옥스퍼드 대학생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로마서 8:13을 본문으로 설교했다. ▶교인들이 지금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는 그들의 마음과 정신 상태를 보여준다. 하나님 자녀로서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 이신칭의는 믿지만, 안타깝게도 복음적 경건이 사라졌다. 하나님의 은혜와 인간의 책임은 같이 간다. 신자는 시험과 유혹을 이기기 위한 좀 더 분명한 지침이 필요하다. '죄 죽이기'는 영혼 안에 있는 죄 경향의 약화이며, 마음 안에 있는 죄 성향의 소멸이다. ① 죄를 죽이는 일은 신자의 평생에 걸친 의무다. ② 오직 성령만이 죄를 죽일 수 있다. 주도적으로 이끄시는 분은 성령이다. ③ 죄 죽이기는 영적 생명과 활력을 얻게 한다. ▶바울은 롬 8:1-3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의 복된 지위에 대해 설명한다. 더 이상 정죄가 없고,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고, 연약하여 할 수 없던 것을 하게 된다. 그 토대 위에 신자들은 거룩함을 이뤄가야 한다. 신자들은 육신으로 살면 안 된다. 우선 거룩함의 길을 걸을 자들은 예수 안에 있는 거듭난 신자들이다. 하지만 그들 안에 내재하는 죄의 권세를 죽이기 위해서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가능하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죄를 죽이려 하는 모든 시도는 헛되고, 성령 이외의 방법은 절망만 남길 뿐이다. 성령은 죄를 제대로 깨닫게 할 뿐 아니라, 죄를 소멸한다. 성령은 우리 안에서 성화를 시작하고 완성한다. ▶신자들 스스로도 자기 몸의 행실을 죽여야 한다. "몸"은 우리의 부패하고 타락된 본성, 죄악 된 욕망이다. 전체적으로 부패한 존재로서의 인간, 죄악 된 욕망들과 뒤튼린 정서들의 본거지가 바로 몸이다. "죽인다"는 것은 십자가에 못을 박아 죄의 권세와 힘을 성령을 통해 제거하는 것이다. 로마 가톨릭이 말하는 죄 죽이기는 심각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믿음을 가지라고 하지도 않은 채, 고행이나 금식 등을 통해 성령 없이 자기 힘으로 하려 한다. 반면 모든 책임을 성령에게 돌리고 자기는 힘쓰지 않는 것도 잘못이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는 분이다. 우리에게 억지를 가하거나 우리 없이 혼자 일하시는 분도 아니다. 죄 죽임을 위한 우리의 노력이 은혜를 무력화시키지 않는다. ▶죄를 죽이면 "살리라"는 약속이 주어진다. 생명이 주는 기쁨, 위로, 능력이 포함된다. 신자가 죄 죽이는 일을 소홀히 했을 때 구원받은 자의 지위와 신분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지만, 새 생명의 활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없고, 그의 영혼과 심령은 파멸에 이르러서 불신자들과 거의 다름없게 되어 버린다. 신자는 거룩하기를 열망해야 한다. 영적 생활의 생명과 활력은 죄를 죽이는 데에 달렸다. 인생의 여정에서 죄를 죽이지 않으면 어떤 발전도 이룰 수 없다. 육체의 행위를 잘 다스린다면 우리는 영적 생명의 활기와 힘, 안정을 얻게 된다.